



노동자
민중당

분회통신_8호 (2018.10.05.)

노동자 직접정치로
세상을 바꾸자



칼럼

앞뒤 안 맞고 모순적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장-

지난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회담은 한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5,000년을 함께 살다가 70년 동안 갈라진 분단의 아픔을 뒤로 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로 들어서는 감격과 흥분을 진정하기 어려웠다.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현재의 남북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나가기로” 굳게 약속하였다.

평양공동선언에서 주목되는 것은 ‘군사분야 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한 것이다. 남과 북이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 각각 평화지대, 평화수역, 평화구역을 조성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것은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정전체제 아래서 중무장한 전투부대들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밀집돼 크고 작은 무력충돌을 수시로 일으켜 긴장을 고조시켰던 일촉즉발의 화약고가 마침내 해체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이다.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서는 ‘단계적 군축’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국방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나흘 전 14일 3천톤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진수식 축사에서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전략”이라며 “강한 군, 강한 국방력”을 역설했다. ‘힘을 통한 평화’가 말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니 문제다.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국방예산은 무려 8.2%나 증액됐다.(이명박 정부 평균 5.2%, 박근혜 정부 평균 4.1% 증액)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전년 대비 13.7% 늘어난 15조3733억 원이 편성됐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3배가 넘는다. 여기에는 미국으로부터 해상초계기 6대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64기를 사들이는 예산도 포함된다. 막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무기를 개발·구매하는 것은 군축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방 정책이 앞뒤가 안 맞고 모순적이면 군비의 축소와 증강 중에서 어느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지 헷갈리지 않을 수 없다. 평화는 결코 말(선언)로 이뤄지지 않으며, 정부의 정책은 앞뒤가 맞고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공자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시민의 신뢰(民信之)를 꼽았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곧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국가는 존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분회탐방

경북노동자민중당 공공연대현장위원회 '바다분회'

하순희 바다분회장

바다분회는 한수원본사 식당에 근무하는 하순희당원과 고미성당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송미영당원, 공공연대노조 현장위원장 위원장 김성기당원이 2017년 8월 9일 만들었습니다.

저와 고미성당원은 한수원 본사 식당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입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다 그렇지만, 언제 해고될지 모르고, 일이 너무 힘들며 관리자들의 횡포가 심해 공공연대노조(옛, 공공비정규직노조)에 가입했습니다.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중당을 알게 되어 가입했습니다.

처음 분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는, 분회 결성 기준이 3명 이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과 늘 같이 다니던 송미영 조합원을 꼬셔서(?) 당에 가입시키고, 분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분회원들은 같은 동네에 살기 때문에 자주 만납니다. 솔직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해, 분회 이름도 『바다』 분회입니다. 2017년 9월 대구에 김광석 거리도 가고, 그해 11월 그렇게 타고 보고 싶었던 정동진 바다 열차, 2018년 1월에 남해 독일마을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분회이지만, 분회 통신 보는 것은 놓치지 않고, 우리당을 알리는 선거운동, 당 행사에도 누구보다 참여율이 높은 분회입니다. 지난 7월 14일 이석기의원 석방 문화제에는 분회원들이 다 참여했어요. 이 정도면 경북의 모범분회라 자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자주 보다보니, 정식 모임인지 일상 모임인지 분간이 안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고쳐서 경북노동자 민중당의 튼튼한 기반이 되는 대표 분회로서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그리고 사법적폐 재판 거래 양승태를 구속시키고, 이석기의원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17년 11월 바다열차 여행



▲ 2018년 7월 14일 이석기의원 석방문화제

현장소식

플랜트 충남지부 사태의 진실

1. 현장 갈등의 진실

- 2017년 김준수 집행부의 ‘임금협상 차등인상 합의안’ 부결
- 쟁대위에서 부결 책임을 지고 **총사퇴 결정**했으나, 김준수 집행부는 **집권 유지를 위해 공작**을 꾸밈
- 김준수 집행부는 당시 노조 분회장들과의 갈등을 전 집행부와의 갈등으로 포장
- 3억 횡령사건 조작, 폭력사건 유발, 전 집행부vs현 집행부 그리고 민중당vs반민중당 대립구도 형성

1. 사찰 및 색깔론

- ‘철노회’라는 현장조직을 반노조세력, 외부세력, 사조직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선동
- 철노회 회원의 컴퓨터를 장기간 불법 사찰하여 대화방 내용을 공개
- 철노회 조직도 조작, 지하조직인 것처럼 선동, 노조 분회장이 철노회 회원 지시를 받는 구조로 왜곡
- 철노회를 민중당, 이석기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과 연결시키며 색깔 공세

2. 공작 성공 후 반대세력 제거

- 징계절차 무시한 채, 선전물 배포 및 ‘임금협상 차등인상 합의안’ 부결운동과 이에 대한 동조방관을 이유로 조합원 9명 제명 처리
- 공조직을 위태롭게 하는 음모조직이라며 ‘철노회’ 회원 전체 명단을 공개
- ‘NO철노회’ 스티커를 제작하여 현장(안전모)에 붙이도록 강요
- ‘철노회’를 민중당 하부조직으로 선전

3. 상급단체 진상조사 실시

- 김준수 집행부였던 김0원 전 조직부장, 2017년 ‘철노회 사건’은 공작이라는 양심고백 선언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진상조사’ 결정을 내리자 김준수 집행부 반발
- 진상조사를 반대하면서 조합원을 동원하여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집단 항의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분담금 납부 거부, 모든 사업 집행과 의결사항 집행 거부

4. 진상조사를 덮을 이슈를 찾아라

- 특별회계감사를 이용하여 현장 내 갈등이 회계부정을 둘러싼 것으로 거짓 선전
-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5개 노조 분회장들의 농성을 회계감사를 막기 위한 농성으로 왜곡
- 진상조사를 막기 위해 노조분회 문자 사전검열, 정기모임 조합원 발언권 원천 차단
- 진상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위원장 등)을 정파논리로 공격

5. 2018년 2월 24일 사태로 모든 것을 덮자!

- 현장책임자가 철노회 회원, 민중당 당원 취업 제한, 이를 김준수 집행부가 옹호
- 수개월 동안의 취업거부사태로 인해 5개 노조분회 정기모임 사전집회 후 단상점거 중 폭력사태 발생(2018.2.24.)
- 김준수 집행부, 진상조사 정국을 바꾸기 위해 독재적인 운영과 취업거부사태로 발생한 폭력을 회계감사 발표를 막기 위한 계획된 폭력으로 왜곡(이날 회계감사 발표는 없었음)

II. 플랜트충남지역노조는 민주노총 아님! 충남서부지부로 새롭게 활동 시작!

- 2018.7.9.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김준수 지부장 제명 및 충남지부 해산 결정
- 이에 불복한 김준수 집행부는 플랜트충남지역노조 형태로 민주노총 충남본부 직가입 신청
-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플랜트충남지역노조의 민주노총 충남본부 직가입 취소 결정
- 2018.8.30.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충남서부지부 설립



7.25 김준수집행부, 충남지역노조설립

7.27 김준수집행부, 충남본부 직가입 강행



8.16 민주노총 중집, 76.5% 압도적으로 “김준수의 지역노조는 민주노총 아님” 결정



8.16 전플 운영위원회, “충남서부지부준비위원회” 공식 인준

다시 뛰는 민주노조!
충남서부지부 준비위원회가
만들겠습니다.



정책과 논점

평양 공동선언의 의미와 내용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올 해 세 번째 정상회담이며 2007년 10월 이후 11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이다. 9월 19일 오전 전문(前文) 포함 모두 6개조로 구성된 『평양공동선언』에 공식서명 했다.

1. 『평양공동선언』의 의미

『평양공동선언』 전문에 명확히 나와 있듯이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그리고 통일로 이어져 나갈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의 철저한 이행이 그 핵심이다.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의 정상들은 이미 전 세계에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천명했다. 이미 남과 북은 2018년 4월 27일 전쟁의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그 ‘종전선언’의 이행을 다시금 확인하는 약속을 했다.

이번 『평양공동선언』에서는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했던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판문점 선언 이행 과정은 민족자주와 함께 민족자결이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고 할 수 있다.

2. 『평양공동선언』의 내용

(1) 남과 북의 실질적 종전선언

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 균형적인 민족경제 발전을 준비하는 선언

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 민족 분단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언

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적십자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가기로 하였다.

(4) 다양한 분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선언

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 ③ 남과 북은 10.4 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5)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선언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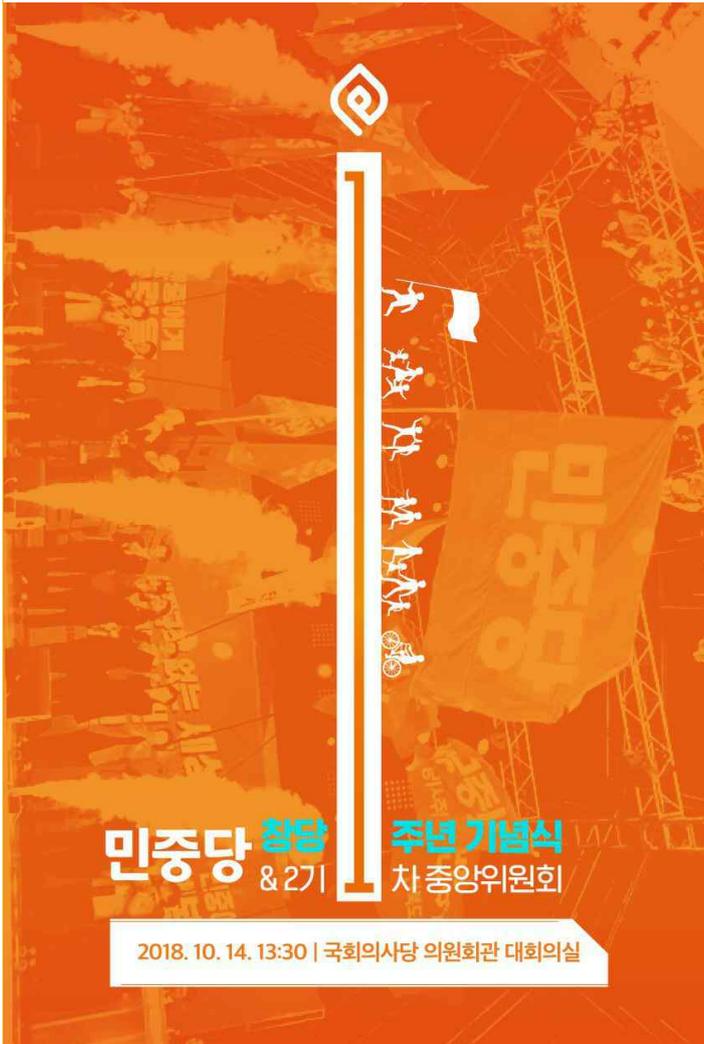
-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6) '선언'을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는 선언

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주요일정

• 창당1주년 기념식 및 2기1차 중앙위원회



•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회

어디에 계십니까, 통합진보당 10만 당원 여러분

10만의 꿈을 명예회복하라

10.20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회

10월 20일 13시 30분 대법원 앞

★ 10.20(토) : 사법적폐청산 범국민대회_17시 광화문 (대회명칭, 시간, 장소 가안)

노동자민중당 분회통신은 매월 5일에 발간 예정입니다.
분회탐방은 꼭 이어집니다. 부담 없이 소개해주세요~
다양한 현장정치활동 소식을 사진과 함께 소개해주세요~
분회통신관련 비판과 요청, 소중히 들겠습니다.